

## 技術力 向上과 技術의 高級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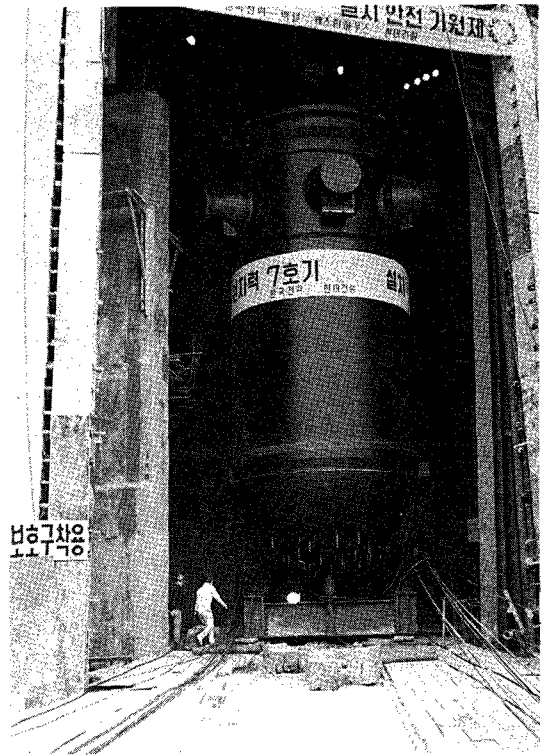
＝現代建設(株)＝

에너지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시설의 확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용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큰 공헌을하여 왔으며, 1990년도에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의 50% 수준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현재 가동중인 9기외에 2030년까지 55기의 추가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큰 공헌을 하는 전원이면서도 반면에 그 안전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해오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에 대한 원전의 신뢰도를 높여 안심시켜야만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여 계획되는 원전 건설 추진이 원활해 지리라 본다.

現代建設(株)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 건설공사에 외국업체의 하도급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원전 건설기술의 기초단계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후 연이어 건설된 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등에서 외국인 업체가 주관하는 원전건설에 10여년간 참여하여 원전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 건설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現代建設(株)은 원전 건설 기술자의 양성과 독자적인 시공 기술 축진을 위하여 지속



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단계적인 기술 도입 계약을 맺는 등 20년 가까이 약 1,100여명에 달하는 기술인력을 해외연수 및 관련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잘 훈련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고리원전 3,4호기, 영광원전 1,2호기에는 단일 시공업체로 참여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인력으로 주어진 공기내에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원전 시공 기술자립의 시기를 앞당길수 있게 되었다.

현재 건설중인 영광원전 3,4호기는 원전건설의 기술자립과 사업수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국내업체 주도형 원전건설사업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대처하여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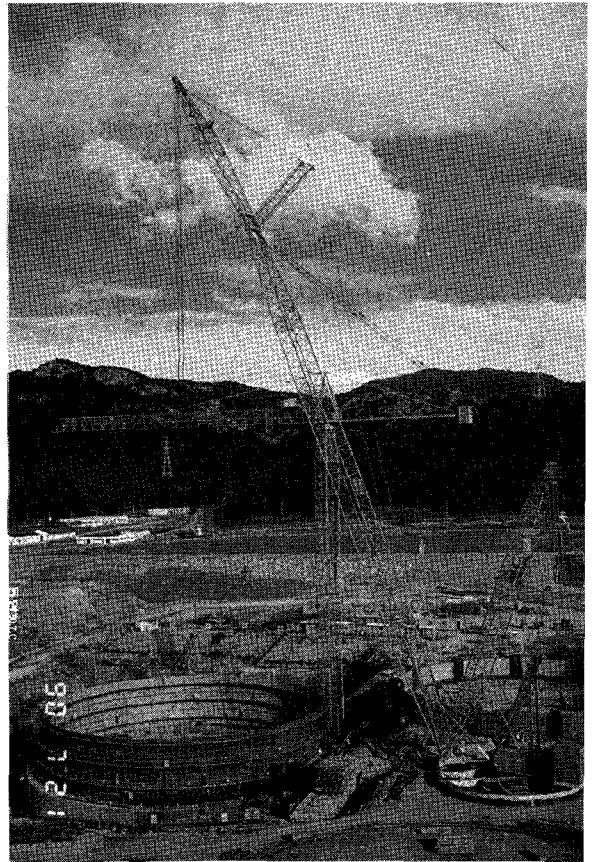
現代建設(株)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국내 최초로 그 동안의 원전 시공으로 축적된 경험을 관련회사 (설계회사, 기자재 제작회사 등)에 반영하는 PRE-PROJECT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자립 목표에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1982년에 ASME CERTIFICATE를 획득한 이래 1985년, 1988년에 이어 금년에 3번째 갱신을 위하여 2월중 SURVEY를 받을 예정이다.

완벽한 QA 체제로서 원전 건설을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국내 원자력 공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ASME CERTIFICATE를 재 갱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TASK FORCE TEAM을 구성 완벽한 준비를 해왔다.

또한 지난해 영광 현장에서는 CAD SYSTEM을 도입 ISO도면 제작에 응용 시킴으로 작업성 향상 및 정확성을 바탕으로 능률향상을 도모시키고 있으며, 자재관리, 도면관리 등을 자체 개발한 전산 SYSTEM으로 업무 처리 효율을 높여 완벽한 기술관리로 안전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現代建設(株)은 1991년도 경영 방침을 의식 전환의 해로 정하고 건전한 기업 정신, 기술개발의 촉진, 확고한 책임의식의 세가지로 설정하고 이러한 바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형주 계약 사업수행과 시공 능력 배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확대 개편, 직원의 재교육 등을 통하여 자질 향상을 꾀하여 보다 높은 책임의식의 확립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원가관리를 위하여 과학적관리, 사무표준화 및 자동화, 시공의 기계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안전의식의 고취와 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1991년 올 한해는 現代建設(株)이 집중적인 기술 개발 투자와 배전의 노력을 발휘하여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또한번의 도약을 하는 199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